

日 증시 초강세... 4만선 넘어서

일학개미, 반도체 종목 대거 순매수

총 1억4658만달러어치 사들여
닛케이지수 올해 들어 19% 상승
美 증시 엔비디아 강세에 수혜

일본 증시 대표지수가 4만 선을 넘어서는 등 초강세인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엔비디아발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수혜 등의 특급 재료를 가진 일본 증시의 반도체 종목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 증시에서 총 1억4658만달러(195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1779만달러(238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에 비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본 증시 보관금액도 지난달 29일 기준 39억1499만달러(5조968억원)로 미국(721억달러·96조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배경은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 지수)가 연일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닛케이지수는 19%가량 오르는 등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이날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 종가 기준 전일보다 0.50%(198.41) 오른 4만109로 사상 최

〈국내투자자 일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기간: 2월 1일~29일)

국가	종목명	순매수액
일본	도쿄일렉트론	646만달러
일본	어드반테스트	265만달러
일본	이토추	244만달러
일본	캐논	214만달러
일본	화낙	213만달러

/예탁결제원

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강세를 보이자 일본 반도체 기업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반도체 종목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도쿄일렉트론이다. 이 종목을 646만달러어치 매입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기업 어드반테스트도 265만달러어치 사들였다.

도쿄일렉트론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따른 수혜 등이 겹치면서 지난 달에만 주가가 32% 뛰었으며 같은 기간 어드반테스트도 19%가량 올랐다.

증권사들이 올해 일본증시에서 눈여겨볼 종목으로 반도체를 제시하고 있

어 이같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와 기업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자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 속에서 일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몸집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은 그동안 상승세가 빨랐던 만큼 추가 부담이 상존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정책 모멘텀이 반영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은혜 삼성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상위 15개 중 8개가 일본 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은 반도체 투자에 20조 원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정책적 성장 기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개시 10주년

거래소, 청산잔고 2000조 넘겨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가 청산 개시 10주년을 맞이했다며, 청산잔고도 2000조원을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 도입은 2009년 G20 합의에 따른 것으로 거래소는 2013년 9월 청산업 인가를 받아 원화 이자율스왑에 대한 청산 서비스를 개시했다. 거래소는 CCP로서 다자간 차감을 통해 결제 규모를 축소했으며, 결제 이행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파산 시에도 연쇄도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왔다.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의 연간 청산금액은 2014년 213조원에서 2023년 1280조원으로 약 6배, 연평균으로는 약 24% 성장했다.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 청산잔고는 2086조원을 넘기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2022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원화이자율스왑을 통한 헤지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만기 1년 이하 거래의 청산증가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계은행 17사, 증권사 23사, 국내은행 13사, 보험 5사, 자산운용 6사 등 총 64개사 청산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 청산 도입 초기에는 국내은행의 비중이 높았으나 2016년 이후에는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가 청산을 주도했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거래소가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CCP 인증을 취득한 이후 청산 참여가 증가했다. 증권사의 경우 CCP청산을 계기로 낮은 신용도 문제가 해소돼 청산 참여가 지속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는 금리 역전에 따른 헤지 거래로 가장 높은 청산거래비중(46%)을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예탁원, 부산 증권박물관 개편 후 재개관

4개 전시실 중 테마 전시실 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 증권박물관이 상설전시실 부분 개편을 마치고 전면 재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증권박물관은 증권이 만든 세상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자본시장 역사를 다 양한 증권유물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이번 부분 개편은 4개의 전시실 중 마지막 공간인 테마 전시실을 개편했다.

이로써 테마 전시실은 전 연령대가 보다 쉽고 흥미롭게 다양한 증권이야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시설물을 설계하고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예탁원 측 설명이다.

주요 체험전시물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과 관련 증권을 알아보는 ‘생활 속 증권’,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증권을 미디어 연출로

볼 수 있는 ‘증권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국가별로 유명한 회사의 증권 이미지에 본인의 얼굴을 넣은 증권을 직접 만들어보고 기념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나만의 증권 만들기’ 등이 새로 설치됐다.

이외에도 예탁원은 관람객 맞춤형 도슨트 전시해설프로그램을 상시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개인 관람객의 전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영문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도 최근 도입해 제공 중이다.

증권박물관에선 이번 상설전시실 부분 개편을 기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람 인증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며, 향후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관이다. /원관희 기자

양회·증시 부양조치 등에 기대감 ↑ 차이나 디스카운트, 이젠 해소될까

상해종합지수 한 달간 8.6% 올라
양회서 성장목표·처방전 발표 관련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 지적도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시작되면서 중국 증시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중국 본토 증시에서는 상해종합지수가 한 달간 8.6% 상승하면서 3000선을 회복했으며, 심천종합지수 역시 같은 기간 11.7% 상승했다. 홍콩증시에서도 같은 기간 홍콩항셱지수가 7.6% 올랐고, 기술주는 홍콩항셱테크와 과창판50이 각각 16%, 19.1% 올라 상승폭을 더 확대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쏟아낸 증시 부양 조치에 더해 양회를 앞두고 정책 기대감까지 반영된 결과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재개와 춘절 연휴 동안 활동성 소비지표 개선, 낙폭 과대에 따른 증시로의 유통성 유입 등으로 중국 증시가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관건은 양회에서 발표될 성장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처방전이 어떻게 나올지다.

전국민정치협상회의가 이날 개막했고,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정책

이 공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시작된다.

작년 양회가 시진핑 집권 3기를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면 올해 화두는 경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재정 압박이 커진 지방정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했지만 중앙 정부는 2035년 경제 규모를 2020년 대비 2배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공격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등 대내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 의지를 강도 있게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면 중국 경제심리가 개선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중국 증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그간의 반등을 감안해도 지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신승용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해종합지수의 주가 수준은 10배로 지난 10년 하위 12%에 해당하며, 기술주 중심의 차이네스트는 하위 3% 수준”이라며

“중국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정책 강화를 고려해 상해종합지수 하단은 2800, 상단은 정책 리스크 해소에 따른 가치 재산정을 가정해 3250선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3년과 반대로 2분기 중국의 디스플레이 완화와 성장률,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상반기 상해종합지수와 항셱지수 예상 지수밴드를 각 2910~3450선, 5270~7100선으로 제시하며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정책 역시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부족과 부채위험으로 이번 양회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이 출시될 가능성은 낮다”며 “부동산 경기와 소비회복이 지연되면서 2분기 이후 부양정책 동력은 약화되는 반면에 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고음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기술적 반등을 활용한 비중 축소 전략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해종합지수가 양회가 개최되는 3월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10년부터 5차례에 그친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3월 수익률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투자증권, 청년 동행 적립식 특판 RP

연 7% 우대수익률... 선착순 4000명

신한투자증권은 만 19세~39세의 청년층(1984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을 대상으로 세전 연 7%의 우대수익률을 주는 ‘청년 동행 적립식 특판 RP’를 4일부터 29일까지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립식 특판 RP는 선착순 4000명까지 신규 및 기존 개인고객 모두가 가입 가능하다. 단, 지난해 8월~9월 진행했던 적립식 특판 RP 기가입 고객(해지 고객 포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간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6개월간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만기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며, 중도 해지 시 세전 연 1.0%가 적용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주로 국공채, 지방채, 통안채 및 우량 등급 회사채 등을 담보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약속된 이자와



/신한투자증권

원금을 지급하는 ‘환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을 말한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고객, 사회와 함께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고객과 함께 행복하자는 신한금융그룹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청년층 고객들에게 월 적립식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 습관을 기르는데 기여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